

종합

돌아오지 않은 8인의 수병... 그대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함수에 있을 수도...”

실종 8명 가족, 함미 수색 중단 요청  
함수 체인 2개 연결 성공... 인양 가속

천안함 함미 부분에서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승조원의 가족들이 희생자 수색작업 중단을 요청했고, 군은 이를 받아들여 수색을 중단했다. 해군2함대사령부는 16일, 천안함 함미에서 36구의 시신을 수습한 가운데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 가족 8명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승조원들을 수색하지 말 것을 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함미를 인양한 백령도 연안과 침몰 해역 주변에서 진행하던 실종자 수색작업을 중단했다. 시신 미수습 승조원의 가족들이 내린 이번 결정은 함수와 함미에서 찾지 못한 전사자는 모두 산화자(散華者)로 처리하기로 하자는

가족들의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시신이 발견된 고남기훈·김태석 상사의 유가족을 제외한 44명 실종자 가족은 전날 오전 함미를 인양하기 직전에 이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가족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창기 원사의 형성기(46)씨는 “백령도에 가 있는 동생과 조카가 오늘 오전 9시에 함미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못 찾았다고 했다”며 “그 정도 찾아봤는데 못 찾았으면 함미에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함미에 대해서만 실종자 수색 중단을 요청한 것이며, 지금으로서는 (실종자가) 함수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서 “8명의 가족 대표가 모여 의견을 수렴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침몰한 천안함 함수 인양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함수 인양팀은 천안함 함수 부분에 인양에 필요한 체인 4개 중 2개를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함수 인양을 맡은 민간 인양팀이 직경 90mm 체인 2가닥을 합체와 대형 크레인선에 연결했다”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함수 인양을 서두른다는 방침이지만, 조류가 거센데다 함수가 높은 상태 역시 함미 인양 때보다 좋지 않고 기상여건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실제 인양은 오는 24일경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개숙인 김 국방

김태영 국방장관이 16일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천안함 실종 장병들의 순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 성격의 입장을 표명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광산구청장 후보 오늘 확정  
북구청장·여수시장 후보는 내일

오는 6·2지방선거 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여수시장, 광주 북구청장 후보가 주말인 17일과 휴일인 18일 확정된다.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 경선은 17일 오후 1시 광산구 호남대 문화체육관에서 민형배·유재신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국민참여경선(국민 여론조사 50%+당원 직접 투표 50%) 방식으로 치러진다. 다음날인 18일에는 광주 북구청장 국민참여경선이 오후 1시부터 전남대 스포츠센터(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날 경선에는 송광운·이형석 후보가 참여한다. 또 이날 오후 1시에는 여수시민회관에서 김강식·오현섭·배성기 경선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광주시장 경선방법과 같은 시민여론조사결과 50%와 시민참여투표 결과 50%를 합산한 결과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박준영 “추가 등록 불가” 재확인  
민주 전남지사 경선 사실상 무산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6일 '전남지사 후보 경선 무산'에 대한 논의를 가진 뒤 지사후보로 공천한 박준영 후보에게 다른 후보의 추가등록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박 후보 측이 이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재확인 한데다 최고위도 미등락으로 인한 단수 후보 결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경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인력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후보공천 재심위원회가 전남지사 경선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논의한 결과 “미등락으로 인한 단수 후보 결정 사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당 내 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로 넘겼다. 최고위가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

은 기존에 결정된 사안을 뒤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 후보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최고위는 “원만한 경선이 성사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박 후보가 양해를 한다면 추가등록을 받을 수도 있으며 다시 한번 (추가등록) 의사를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 측도 최고위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경선을 재개해 당에 활력과 변화를 주자”며 “최고위의 권고를 수용해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자”고 박 후보에게 경선 추가등록에 동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후보 측은 이 같은 최고위의 권고에 대해 “양보 여부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며

사실상 양보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박 후보 측은 이날 최고위가 (추가등록) 양해를 권고한 것도 정치적인 제스처로 보고 있다. 주 의원과 이 전 군수 지지자들이 중앙당의 단독후보 결정에 반발하며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자 일단 ‘공’을 당 내 최고 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와 당사자인 박 후보에게 떠넘겨 부담을 최대한 덜어 보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까지 최고위원회가 세 차례나 전남지사 후보 경선 문제를 논의하고도 결말을 짓지 못하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지도력 및 정치적 부재’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순천시장 경선 잡음 가중

이 은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무효 주장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가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추진하다가 최고위원회의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소란이 일었고 이어 전남 22개 기초단체장 경선 중 유일하게 ‘체육관 경선’이 도입돼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그런데 이제는 노관규 현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예비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단일화를 이루고도 여론조사 과정 상 문제가 드러나면서 낙마한 후보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 은 예비후보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나를 포함해 구희승, 조보훈 예비후보 3명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해 지난 12일 조보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됐는데, 여론조사 추진 과정을 점검해 본 결과 곳곳에

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과 부당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여론조사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조보훈 후보가 여론조사 관리위원장이 있음에도 단독으로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했고, 여론조사 비용도 세 명의 후보가 600만원씩 분담해 납부한 것과 별도로 조 후보가 (일정액)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표본추출과 조사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어 “16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조 후보를 검찰에 고소했다”며 공정한 여론조사 재실사와 조보훈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설

천안함 침몰 원인 정략적 이용 안된다

천안함이 외부충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천안함 침몰사건을 규명 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이 16일 함미 절단면을 조사한 결과, 외부 충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합동조사단은 절단면이 아래에서 위로 솟구친 것 등 다양한 현상을 분석해 여파에 의한 공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상 형태로 미뤄 내부 폭발 가능성은 낮고 선체 밑바닥이 찢긴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좌초에 의한 선체 절단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이 합조단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차원의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면 명확하고 단호한 후속조치가 감구되어야 한다. 천안함 승조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설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탄박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함수를 인양하고 잔해를 일일이 수거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투명한 조사와 과학적 판단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고위 당국자의 신중한 처신이 요구된다. 심증이나 가정을 전제로 한 발언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정치권 역시 이번 사건을 국면전환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된다. 혹여라도 6·2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위한 어떠한 시도도 경계해야 한다. 원인 규명 못지않게 이번 사고를 우리 군과 안보의 체질 개선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허술한 보고체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습만이 산화한 장병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다.

취청대는 지역경제 이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지역경제가 증진 건설업체의 잇단 법정관리 신청에다 금호타이어 사태마저 해결이 불투명해 암담한 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다. 당장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여파가 협력업체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국내 철강유류 1위 업체인 새한철강이 남양건설 등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협력업체들의 ‘부도 도미노’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가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65개에, 346억에 이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여 개 업체의 부도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여기에 또 다른 대기업의 도산 소문이 나돌면서 지역경제에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역시 법정관리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돼 자칫 파국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업이 망하고 수백개에 이르는 협력업체마저 줄줄이 도산한다면 돈이 돌지 않아 지역경제는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협력업체를 살려야만 워크아웃이든, 법정관리에 들어가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 정치권을 대표하는 민주당은 지방선거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 이렇다할 언급조차 없다. 정부와 은행권은 원칙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취약한 지역경제가 정치적인 산물이었듯이 정치적으로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권도 무조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육석을 가려 현실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노사도 냉철한 자세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공멸의 길로 들어서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와 한나라당 김문일 전남지사 경선 예비후보는 16일 오전 영광군 염산면 설도 어시장에서 만나 전남발전을 위한 각 후보 간의 정책을 공조하기로 했다.

김문일-박준영, 전남 발전 정책 공조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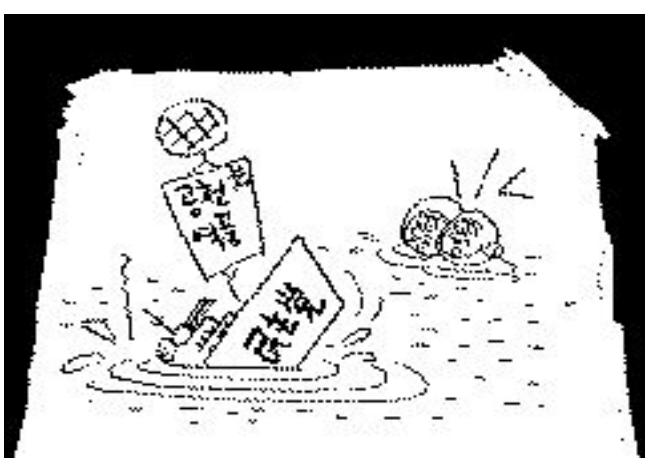
김문일 한나라당 전남지사 경선 예비후보가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에게 정책 공조를 제안했다. 김문일 한나라당 전남지사 경선 예비후보는 16일 “이날 오전 영광군 염산면 설도 어시장에서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를 만나 전남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공조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박 후보와 만난 자리에서 전남도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남도음식학교 개설 ▲제3 선수촌 유치 ▲

광양만자유구역권 카지노 개설 등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으며, 전남지사로서 누가 당선되면 정책 공조를 통해 이 같은 구상을 구체화하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태릉선수촌이나 충북 진천에 건설중인 제2선수촌과 같은 시설이 전남에도 건립되는 게 옳다는 의견에 박 후보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광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website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빛日만평

- 김종두



따라할게 따로 있지, 원--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 정용화

“경제 살려 희망찬 광주 만들어”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로 정용화 예비후보(전 청와대 연설기록서관)가 최종 확정됐다. 한나라당 광주시당은 정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와 14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 후보는 이에 따라 오는 19일 5·18 국립묘지와 4·19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로의 본격 행보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한나라당 광주시당 사



무실에서 당직자들과 함께 오는 6·2월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하고, 시장 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복지광주 건설 등의 새로운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정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비서관 경력의 역량을 살려 희망찬 광주의 꿈을 위해 청와대와 지속적인 소통 역할을 해내고, 광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힐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